

행정안전부 장관, 강풍·건조 등 산불위험 고조에 따른 산불방지 특별 지시

- 윤희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원 영동과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, 산림청, 지방정부 등 관계 기관에 산불 예방과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다.
- 특별 지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먼저, ▲산불 위험행위에 대한 계도·단속 강화와 산불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등 사전 예방조치 철저, ▲산불진화 장비와 인력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대비태세를 확립 등을 강조했다.
 - 아울러, ▲지방정부·산림·소방·경찰·군부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▲신속한 주민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피체계를 사전에 정비할 것을 당부하였다.
 - 행정안전부는 산불 위험 시·군에 지역책임관을 운영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, 실시간 상황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.
- 윤희중 장관은 “당분간 강원 영동과 경북지역에 강풍과 함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, 대형산불을 막기 위한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”이라며,
 - “정부는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실시간 산불 감시를 강화하고, 산불 발생 초기부터 관계기관이 함께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사회재난실	책임자	과 장	안길주 (044-205-6170)
	환경산림재난대응과	담당자	사무관	고용석 (044-205-6171)